

여수, 노인일자리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수행기관 3곳 선정...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 조성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수행기관인 여수시니어클럽,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과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수행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관별 맞춤형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컨

설팅을 지원하며 우수기관에는 안전 환경개선 지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 삶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수행기관과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14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이다.

여수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

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행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 활동도 추진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관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8천여 명이 참여하며 전남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청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금융진로 교육 성료

순천시는 지난 18일 순천시청 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미래설계 LEVEL UP 금융진로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소비와 신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소비와 신용의 개념, 용돈 관리, 지불수단 이해, 신용관리 방법, 금융권 직업 탐색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금융 보드게임과 참여형 활동을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연계해 전문강사 파견 및 강사비를 지원받아 보다 체계적인 금융·진로 교육으로 운영됐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경제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실시

광양시는 지난 18일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의 하나로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시민참여단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 타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례를 광양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총 5회기의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진행한 에스티시(STC)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이어 3회차 과정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지연 시민참여단 회장을 비롯한 단원 25명과 인솔 공무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참여단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역량 강화 거점 공간인 '여성희망창작소'를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광주 동

구청 양성평등친화팀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여성희망창작소 사무국장이 ▲창작소의 설립 배경 ▲공간 운영 방식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주요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광주여성가족재단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광주 여성길(백단심길)' 도보 투어에 참여해 광주 근대여성들의 삶과 활동이 담긴 역사 거점을 둘러봤다.

김지연 시민참여단 회장은 "현장 특강과 역사 탐방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남은 교육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광양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초등 저학년 기초 수학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에서 초등 저학년 기초 수학 학습 지원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가정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차이판 수학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과 학습 과정, 가정 내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교육발전특구 수혜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곡성교육포털 모임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9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덧셈·뺄셈 등 기초 연산을 중심으로 자기주

도적인 수학 학습을 이어가게 된다.

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기초 연산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닌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학습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더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이외에도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수학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전남(구례, 광양), 경남(하동)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감염목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구례군(남도대교), 광양시(섬진강대교), 하동군(섬진교) 3곳에서 동시 진행되며, 원목취급업체와 화목농가 교차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목재 등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절차 준수 여부 및 감염의심목 무단 이동 등으로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과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